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함서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741-04-365950 (예금주: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 을 클릭하세요.

# 젖병소독·목욕·빨래... “하루가 짧아요”



◇윤경이가 활짝 웃는다. 스님도 따라 웃는다.

◇‘윤점이의 눈물’. 부쩍 엄마소리가 늘었다.

8명 ‘엄둥이’ 돌보는  
청오·무인 스님



◇‘여덟 남매의 엄마’, 무인스님. 젖병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엄마다.

## 94세 청오스님 탁발로 분유값 마련 3평 방안엔 기저귀등 아기용품 가득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수경사 앞에는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포대기는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무인 스님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아가지?”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이 없었다. 첫 번째 딸, 윤경이는 이렇게 수경사에 들어왔다.

### 일주문에 버려진 ‘포대기’ 들

식구가 늘었다. 두 살배기 아기와 열한 살짜리 소녀. 지난달 14일부터 수경사의 가족이 됐다. 이름도 새로 지었다. 윤점, 윤화. 윤점은 온 몸이 점투성이라서, 윤화는 미소가 꽃보다 예쁘다 해서. 가족이 여덟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25일에 들어온 윤경이를 비롯해 10월 6일 윤주, 10월 24일 사내 쌍둥이 윤권이와 윤수, 11월 24일 윤진이, 12월 19일 윤성이까지. 이제는 ‘여

덟 남매’가 됐다.

“고양이 소린 줄 알고 흑사나 싶어 나가 봤더니 포대기에 돌돌 말린 윤성이가 있더군요. ‘누가 또 아이를 놓고 갔구나!’ 일단 안고 들어와야 했지요.” 무인 스님은 포대기에 얽힌 사연들을 담담히 풀어헤친다.

절로 보내진(?) 아이들은 하나 같이 작고 약했다. 병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지만 어려운 절 살림에 꿈도 꾸지 못했다. 젖병을 무는 것조차 힘겨워 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인 스님은 우유 한 방울, 한 방울을 입가에 적서 먹였다. 아흔의 노구인

청오 스님도 활처럼 굽은 허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는 아이들을 안아 어르며 키웠다.

“모두들 건강해 보이지요? 잘 크고 있는 애들이 고마워요. 아마도 버려진 만큼 생존 본능이 애들을 더 악착같이 살게 했나 봐요. 끝끝내 놓지 않는 생명력에 경외감을 느끼게 됐지요. 힘든 세상에 보듬어야 할 인연들이 많아요. 버려야 할 만큼의 비정한 사람도 있지만, 끌어안아야 할 사람도 있어야지요” 노스님이 머쓱한 웃음을 내보인다.

### ‘여덟 남매의 엄마’ 무인 스님

목탁 대신 ‘젖병’을 든 청오(94) 스님과 무인(48) 스님. 두 스님에게는 공풍증이 있다. 13살 때 동진(童眞) 출가했다는 것이다. 청오 스님은 81년 전 강원 오대산 상원사에서 향봉 스님을 은사로, 무인 스님은 35년 전 의정부 대원사 하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두 스님의 인연은 무인 스님 6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오 스님이 도반이 있던 경북 청송포교당에서 처음 만났다. 스승과 제자이기보다는 부모자식 같다는 이들 스님이 ‘할아버지와 엄마’로 살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전부터다. 열팔걸에 하나 돌씩 거두다 보니, 3평 남짓한 청오 스님의 방은 이미 아기들 방이 되 버렸다. 엄주와 목탁, 그리고 아기 용품이 뒤엉킨 스님의 방. 배냇저고리가 널린 빨래 건조대는 방 중앙에 들어서 있고, 기저귀 더미는

방 한쪽에 그득하다. 이것도 모자라, 아기 침대는 청오 스님의 잠자리까지 점령했다. 영락없는 아기 방이다.

스님들의 하루도 죄다 아기를 것이 됐다. 이른 새벽, 인근 약수터에서 약수를 길어다 우유 톨 준비하는 것부터 수십 개의 젖병과 산더미 같은 세탁물까지, 스님들의 정신을 속 빼놓았다. 늦깎이로 입학, 삼선 승가대 4학년이 되는 무인 스님이 오전에 학교에라도 가게 되면, 아기들은 더 울어댄다. 무인 스님 손에 익은 까닭이다. 순화가 동생들을 어르고 안아보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래도 청오 스님은 내버려 둔다. 무심할 정도다. “아기는 크게 울면서 커야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라는 말로 난감한 상황을 애써 평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청오 스님은 젖병 삶는 것부터 아이들의 목욕 물 데우기, 분유 타기, 빨래까지 아이들의 시봉(?) 만큼은 마다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을 뿐이다.

“잔정에 매달릴 수 없어요. 여덟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듬어 줄 수 없는데, 손까지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고 어르면 어를

수룩 아이들을 보살피기가 더 힘들어져요.”

반면, 무인 스님은 ‘극심 엄마’다. 적어도 청오 스님이 보기에는 그렇다. 윤경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쌍둥이 형제 윤권이와 윤수의 뺨에 뽀뽀세례를 퍼붓는다. 이뿐만 아니다. 새로 법당을 짓느라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 2만원이 넘는 고급 분유에 영양제까지 타서 먹인다. 그럴 때마다 청오 스님의 꾸짖은 듯하지만, 엄마의 자식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애들이 예쁜 짓을 해요. 맥물 옷을 입고 있어 세속적인 인연과 거리가 있겠지만 정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도 전생부터 모자의 인연이어서 이곳으로 왔나 봐요.”

### ‘아이를 두 번 버릴 수 없다’

무인 스님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도 늘었다.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점이와 윤화를 받을 때, ‘여덟은 자신 없어요.’라

고 말했다가 청오 스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터였다.

청오 스님은 단호했다. “한번 버려진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두 번 버리라고요? 그러려면 애들을 다 버리세요.”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라고 이름도 새로 지어준 스님이었다. 분유가 떨어지면 아흔의 노구를 이끌고 추운 거리에서 탁발까지 했던 스님이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게 아니 예요. 받을 것을 받고 있을 뿐인 거죠.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에게 염불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 앞에 버려졌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수행의 일부인 두 스님. 이 아이들이 건강한 젊은이들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두 스님은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

■ 후원계좌: 우리은행 019-054705-02-020(예금주 김진우) (02)359-5467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jgo@buddhapia.com



◇노스님도 자고, 엄둥이들도 잔다. 한바탕 아기들과 ‘목욕전쟁’을 치르고 나면 벌어지는 공풍이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기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